

“지리산 노고단·정령치 도로 친환경교통체계로”

국립공원공단, 달궁 등 3개 노선 도로·주차장 등 운영책 마련 8월까지 연구용역 마쳐...주민들 “케이블카 설치도 용역 반영을”

국립공원공단이 지리산국립공원 내 노고단과 정령치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생태탐방원에서 지리산 노고단·정령치 도로 친환경교통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설명회를 갖고 용역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설명회에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단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냈다.

연간 50여만대의 차량 운행으로 매연이 발생하고 ‘로드킬’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낳고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 내 노고단과 정령치 도로 구간은 보다 개선된 친환경교통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 자리에서 용역 책임연구원 성찬용 한밭대학교 교수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칠 계획이다”라며 “구례군도 12호선인 노고단도로와

지방도 861호선인 정령치도로, 지방도 737호인 달궁 반선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해 현재의 교통현황과 동식물 대기오염 등 환경현황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지리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도로운영 개선방향을 찾아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남태한 국립공원공단 공원계획부장은 “용역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 도로와 주차장 등 전체가 용역 연구 대상이며 결과물이 나오면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민 구례군지역발전혁신협의회 위원장은 “1967년 구례군민들이 10~20원씩 각출해 경비를 마련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국립공원 제1호가 탄생하면서 지역경제 부흥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오히려 각종규제에 목여 재산권 침해 등 피해만 봤다”며 “이번 용역에서는 지역민들의



국립공원공단이 지리산 노고단과 정령치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폐쇄가 거론되고 있는 노고단 성삼재 주차장 전경. <구례군 제공>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선별 셔틀버스운행이 거론되는데 케이블카가 더 환경 친화적이다”며 “많은 지역민이 케이블카 설치도 용역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용역과는 별도로 구례군은 453억원을

들여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지구에서 노고단아래 종석대까지 3.1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일 환경부에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남원시 역시 전기열차로 운행하는 지리산산악철도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 연운당의 옛 문서들’ 발간 전남도 유형문화재 321호



곡성군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21호인 연운당 고문서를 정리한 ‘곡성 연운당의 옛 문서들’ 도록을 발간했다.

연운당은 곡성군 석곡면 연운촌에 자리 잡은 선산 류씨들의 곡성입향 본가다.

연운당 고문서는 해당 가문에서 조선시대부터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이다. 과거문서, 호적문서, 소지류, 일기류, 미암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 등초록 등 일괄 문서가 177점에 달한다.

조선 후기 향촌 사회사와 제도사, 생활사 등을 이해하는 귀중한 기록유산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 받아 2015년 8월 6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21호로 지정됐다. 이번에 발간된 ‘곡성 연운당의 옛 문서들’은 석곡면 연운당에 소장돼 있는 문서 177점을 문서에 대한 해제, 문서별 사진과 번역, 탈초 등을 첨부해 도록(圖錄) 형태로 묶은 것이다.

고문서별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관련된 용어 해설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연운당 고문서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여수시, 설 명절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사주기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사주기’에 나섰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산하 공직자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사주기 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여수문화홀 로비에 ‘여수시 농특산물 홍보 전시장’을 운영하고,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시중가보다 최대 42%까지 저렴하게 판매했다.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거문도해풍속영농조합법인 등 14개 업체와 지역 농가가 참여했다. 청정 여수의 우수 농특산품인 하이아미, 옥수수 조청, 4색 썩떡국, 잡곡, 꽃청, 한과, 버섯, 화장품 등 23개 품목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소비자가 홍보 전시장에 진열된 농특산품을 직접 보고 해당 업체에 주문할 수 있도록 연계 운영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사주기’로 감사와 효도의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와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지난 18일 도화면에서 송귀군 고흥군수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준공식이 열렸다.

고흥에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준공

(주)담우, 나물류 가공 유통 국내외 시장 진출 농가소득 창출

고흥군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이 완공됐다.

이번 준공된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다양한 농식품 자원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화 시설로서, 생산에서 가공, 유통, 수출까지 수직계열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향토기업 육성으로 지역발전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농업회사법인 (주)담우(대표 모윤숙)는 그동안 제조·가공시설이 없어 수작업을 통한 원물로만 판매해 왔으며 지역 인지도가 낮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지난해 전남도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지원 공모사업과 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 팩토리 지원사업으로 가공공장(신축

40평), 시설장비(6종) 등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국내 유통 및 해외시장 유통채널 확장에 나섰다.

담우는 지역민과 상생을 도모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80세이상 지역 어르신 일자리창출(7명)과 나물 재배농가 계약재배(4농가) 실시, 나물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로 연간 3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의 아마존 채널과 미국 내 LA 유틸리물에 인기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준공으로 지역에서 재배 및 생산되는 취나물, 방풍나물, 곤드레나물, 부지깽이나물 등 피클 장아찌 상품화로 농식품의 판로 확보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채널 확대 등 관내 식품기업 육성으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보성군의 대표축제인 제23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심사위원단의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다.

매년 전국의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참여한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될 위기에서 무관중 경연대회로 전환해 개최됐다.

<사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전문업체가 대

회 기간 동안 경연장을 전담 관리했으며, 경연자·심사위원 등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만 축제에 참여 가능케 했다.

2021년 제23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는 10월 1일~3일 동안 열렸으며 축제 관련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축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제24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하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매화축제 올해도 안 열린다...3년째 취소

대표적인 봄꽃축제인 광양매화축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도 취소됐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광양매화축제는 해마다 100만명 이상 찾는 광양시의 대표 축제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도 매화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

다. 2020년 이후 3년 연속 취소되는 셈이다.

축제 취소에도 관광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상항실을 운영하고 교통과 주차관리, 불법 노점상 및 불법 음식점 단속, 이동화장실 추가 설치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할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